

# 광주·전남 '좋은 일자리' 갈수록 줄어든다

비정규직 비율 40.8%·39.4%  
지난해 광주 고용률 전국 14위  
전남 상용직 비중 전국 최하위  
수도권 쏠림 청년실업도 급증

광주·전남지역 일자리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늘어나고 청년실업 역시 증가하고 있다. 새롭게 창업한 기업의 비율은 줄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사례 역시 속출하고 있다. 청년고용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심각한 청년실업률 등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처방을

요구하는 의견과 함께 갈수록 떨어지는 지역의 고용률을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의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 (지역별 고용 격차와 불균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고용률은 전국 평균(60.64%)에 못 미치는 58.25%를 기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머물렀다. 이밖에 경제활동참가율도 전국 평균(62.5%)을 밑도는 61.0%로 전국 14위 수준을 보였다.

반면 전남지역 고용률은 63.9%, 경제활동참가율은 65.4%로 전국 시·도 중 2번째로 높았다. 실업률은 1.9%에 불과해 전국 1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용직 비중을 보면 전남은 64.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고 상당수 근

로자들이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광주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0.8%로 2015년 35.5%보다 5.3%포인트 증가하며 전국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39.4%로 전국 6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36.3%, 수도권 평균이 34.9%로 타지역에 비해 광주·전남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고,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청년고용률은 광주가 37.1%로 전국 10

위, 전남은 35.2%로 13위를 기록했으며, 청년실업률은 광주 8.9%(6위), 전남 7.0%(16위)였다.

2018년 기준 비수도권 대학졸업자의 수도권 취업 비중(31.6%)은 수도권 대학졸업자의 비수도권 취업 비중(10.1%)의 3배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학졸업 후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청년고용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청년고용률의 시도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광역시 수준에서의 심각한 청년실업률 등 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활동기업 종사자와 혁신형 기업 등도 수도권에 치중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적인 처방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기차 충전기 이용시간  
전남, 전국서 가장 짧아  
월 1580분...세종 절반도 안돼

전기자동차 충전기 평균 이용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전력거래소가 최근 발간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 책자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전기차 충전기 월 평균 이용시간은 2382분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이용횟수는 16회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월 평균 이용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세종으로, 이용시간은 3469분(월 15회)이었다.

반면 이용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남(1580분·14회)이었다.

전남지역에서는 급속 충전기를 월 평균 1417분(34회) 이용했고, 완속 충전기는 1638분(6회) 썼다.

전국 평균 이용시간은 급속 2086분(54회), 완속 2440분(9회)으로 조사됐다.

평균 이용시간을 시·도별로 보면 세종에 이어 제주 3031분(34회), 인천 2909분(17회), 대전 2818분(16회), 경기 2688분(16회), 대구 2575분(17회), 서울 2551분(16회), 광주 2346분(11회), 부산 2335분(10회), 충남 2237분(15회), 울산 2037분(12회), 충북 2004분(17회), 강원 1940분(17회), 경북 1824분(17회), 경남 1751분(12회), 전북 1585분(13회)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이용횟수는 제주가 34회로 10회대인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급속 충전기의 월 평균 이용횟수가 92회로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전력거래소 측은 풀이했다. 제주도는 높은 전기차 보급률(3.7%)로 인해 월평균 이용시간 또한 세종을 이어 2위(3031분)를 기록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대수(누적)는 올 6월 말 기준 약 7만2000기이며 이중 급속충전기는 1만3000기(17.7%), 완속충전기는 5만9000기(82.3%)로서 완속충전기의 보급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급속충전기 1대당 전기차 대수는 전국 평균이 15.3대로 나타났는데, 부산, 인천, 서울은 각각 29.4대, 24.3대, 23.9대로 나타난 반면 강원, 전남, 전북은 각각 7.6대, 9.2대, 9.3대로 나타나 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전기차의 보급대수는 많은 반면 급속충전기의 상대적 보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충전기 1대당 전기차 대수는 숫자가 적을수록 급속충전기 보급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스마트 공장 만족"

상생 사업 참여 345개사 조사  
생산성 증가 가장 큰 성과 꼽아

스마트공장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업부·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한 '대·중소 상생형(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 345개를 상대로 지난 10월 12일~11월 22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88.7%)이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는 ▲제조현장 개선(72.9%) ▲낮은 기업부담금(14.4%) ▲삼성전자 멘토(컨설턴트)의 밀착지원(8.5%)을 꼽았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얻게 된 성과는 생산성 증가(41.4%)에 이어 작업환경 개선(21.2%), 품질 개선(18.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생산성 증가 23.8%, 품질 개선 24.9%, 원가 절감 15.6%, 납기 단축 17.3%의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참여기업의 15.1%는 고용인력이 평균 9.1명 증가했고, 22.9%는 매출이 평균 27억 7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고용인력 및 매출 증가 이유는 ▲생산량 증가 ▲수주량 증가 ▲품질개선 ▲자동화 공정라인 신규 고용을 꼽았다.

한편 응답자의 93.6%는 스마트공장이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0.6%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5.8%였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93.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 제조기업의 활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지속·확대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ESG, 탄소중립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나약하지 않고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지원 분야에 산업안전 및 탄소배출 감축 설비를 포함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톡(Talk) 데이트'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가운데)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MZ세대 신입행원들과 '톡! 튀는 MZ세대와 톡(Talk)하는 송프로가 함께하는 데이트'를 진행했다. 송 은행장은 최근 두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직원 131명과 자유로운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 <광주은행 제공>

## 농협 전남·광주본부 '마이데이터' 교육·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는 맞춤형 금융정보 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펼치기 위한 교육과 기념행사를 펼쳤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 상호금융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됐다.

전남농협은 이날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지역 농·축협 신용상무 140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 디지털 금융교육'을 벌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축협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주 금융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밀레니얼·Z 'MZ 세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됐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같은 날 서광주농협에서 '빅뱅크 마이데이터' 출시 기념 기념행사를 벌였다. 이날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가입자로 나서기도 했다.

'농협 빅뱅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고객의 금융컨설팅 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분석, 농업정책 자금 추천 등의 농업인 조합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은 농축협 비대면 사업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 농업인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중장기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아파트 14가구 특별분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4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오통푸르지오 파르세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무안 남악신도시 오통택지구에 소재하며, 이번 공급 물량은 14가구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특별 물량을 확보해 공급하는 것으로, 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

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선정은 재직기간, 수상경력, 자격증 등의 가점요소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진다. 지난해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등 24곳, 78명에게 특별공급한 바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 3001.80 (+10.08) |
| ↑ 코스닥        | 1006.04 (+9.40)  |
| ↓ 금리(국고채 3년) | 1.831 (+0.041)   |
| ↓ 환율(USD)    | 1175.90 (-3.60)  |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